



월서 스님의 주련 이야기 35

세월을 탓하지 말고 정진하라

[원문] 一念普觀無量劫 (일념보관무량겁) 無去無來亦無住 (무거무래역무주) 如是知三世事 (여시요지삼세사) 趨諸方便成十力 (초제방편성십력) -강화도 전등사 약사전

[번역] 한없이 긴 세월도 한 생각 안에 있어 오고 감도 머무름도 역시 또한 없네. 이와 같이 전생과 현생 미래의 일 모두를 알 수 있다면 모든 방편을 뛰어 넘는 부처님이 되리.

[신해(禪解)] 우리는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은 지 벌써 60여 년의 긴 세월이 흘렀다. 지난 9월 26일 금강산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서 옛날 청소년이었던 두 형제가 백발이 되어 다시 만났다. 나는 이 광경을 눈으로 목격하면서 새삼 가슴이 뭉클했다. 그들은 짧은 시간 만나고 또다시 긴 이별의 시간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

인간사에 있어 가장 큰 슬픔은 바로 이별이다. 하물며 살아있어도 만나지 못하는 생이별은 더 큰 슬픔이다. 생사(生死)를 알지 못하는 가족의 이별은 평생을 가슴속에 한을 품고 산다. 그런데 누가 이런 생이별을 하게 만들었는가?

엄밀히 따지면, 이는 남북한도 아니고 바로 정권욕에 불랐던 김일성이라는 한 사람 때문이다. 그의 야욕으로 인해 수백만 명의 동족이 죽었으며 또한 생이별을 해야 했다. 지금도 휴전선 너머 가족과 생이별 한 채 수십 년간 마음의 병을 앓고 살아온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남아 있다.

그런데 김일성이란 이름은 오래전부터 사라진 지 오래이며 그 대신 그의 아들인 김정일이 우상화되어 있다.

하지만 만약, 이대로 또 10년이 흐르고 나면, 많은 사람들은 그 한을 품고 죽을 지도 모른다. 세월은 상처의 흔적을 잊게 하는 힘이 있다. 때문에 세월은 그들이 저지른 만행의 흔적조차 사라지게 할지 모른다.

이미 20~30대 오늘의 세대는 전쟁이 있었는지 그 존재조차 있었으며 과거, 북한이 저지른 만행조차 기억하지 않는 것 같다.

오히려 북한에게 동조하기까지 한다. 동족이어서 우호적인 태도는 가지는 것은 좋으나 그 체제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가져야만 한다는 것이다.

지난 6월에는 수공(水攻)을 저질러 6명의 국민을 죽게 하고, 또 이면(異面)에는 이산가족 상봉이

라는 이중적 태도를 가지는 그들의 인면수심(人面獸心)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이유이던 과거의 아픔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또 어떤 일을 저지르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다.

지난해 불교종단에서는 6.25로 인해 폐허가 된 북한의 강원도 고성군 온정리에 있는 신라시대의 사찰인 신계사를 복원하기 위해 막대한 돈을 들여 현대아산과 연계해 복원을 해 주적이 있었다.

신계사는 유점사, 장안사, 표훈사와 함께 금강산의 4대 사찰로 꼽힌다. 또한 '민족공동체 추진본부'에서는 앞으로는 북한의 사찰을 복원하려고 하고 있다. 그런 와중에 일어난 수공(水攻)과 남북 이산가족을 보고 우리 불교계는 그들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과연 그들을 위해 우리가 베풀어야 할 일이 무엇인가라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하루 빨리 우리 정부는 인도주의 차원에서라도 지속적으로 이산가족 상봉 문제에 대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명박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오늘의 주련 여행은 강화도 전등사다. 이곳은

했는지 알 길이 없다.

'한없이 긴 세월도 한 생각 안에 있어/ 오고 감도 머무름도 역시 또한 없네.'

요즘, 우리는 역사의 현장을 체험하고 있다. 세월은 이렇게 한없이 흘러가지만, 자연은 천년의 역사를 고이 안으로 품고 있다. 어찌 보면 역사란 한 생각 안에 고여 있으며 인간의 삶 역시 오고 감에 머무른 바가 없다. 말하자면, 천년의 역사도 한 생각에 지나지 않으며 인간의 삶도 덧없음을 이르는 선구(禪句)라 하겠다. 그래서 부처님도 일찍이 인간의 생사(生死)에 대해 '오고 감의 머무는 바가 없다'고 하셔서 않았는가.

'이와 같이 전생과 현생 미래의 일 모두를 알 수 있다면/ 모든 방편을 뛰어 넘는 부처님이 되리.'

승가(僧家)에서의 선(禪)은 부처님의 삼처전심(三處傳心)이요, 불립문자(不立文字)이다. 그속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깨달은 게 곧 선인 것이다. 인간의 삶은 결코 그 선을 뛰어 넘지 못할 뿐더러 전생, 현생, 미래의 일 또한 알지 못한다.

더구나 인간은 눈앞에 일어날 일조차 알 수가 없다. 때문에 인간의 삶은 죽음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만일, 인간이 삼세(三世)를 능히 알 수 있다면 방편을 뛰어 넘어 부처님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다. 하지만 인간의 삶은 무력하기 때문에 스스로 마음안의 행복을 찾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탐(욕망), 진(화념), 치(어리석음) 삼독(三毒)을 버려야만 한다. 이러한 삶의 이치를 능히 깨달을 수 있을 때만이 마음속의 행복을 찾을 수가 있다.

벨기에의 문화자 마테를링크가 쓴 '파랑새'라고 하는 희곡은 우리에게 너무나 유명하다. 어느 날 나무꾼의 두 어린 남매가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서 요술쟁이 할머니가 나타나서 파랑새를 찾아 달라 한다. 두 남매는 행복의 파랑새를 찾아 멀리 여행의 길을 떠나 죽음의 나라와 과거의 나라를 병들어다니고, 두루두루 편력을 한다.

하지만 아무 데서도 파랑새를 찾지 못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집에 돌아와 보니 그 파랑새는 자신의 집에 있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부처를 밖에서만 찾으려고 해서 안 된다. 진불(眞佛)은 법당이나 선방, 산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심(自心)안에 있다. 바로 내안에 부처가 있는 것이다. ■ 조계종 원로의원

억겁의 시간도 깨닫고 보면 한 찰나에 불과한 것 삼독심 버리고 현재에 지극하면 올바른 수행 가능

고구려 소수림왕 때 아도(阿道)가 장건한 유서 깊은 곳이다. 아도는 당시 적국(敵國)이었던 신라에게 불교를 전한 인물이다. 그는 신라인으로 첫 번째 신도가 된 '오례'의 집에 숨어 살면서 포교를 하여 신라시대의 찬란한 불교문화를 꽃 피운 사람이다.

당시 절의 이름은 진종사(眞宗寺)였는데 이후 고려 때와 조선시대를 거쳐 계속적으로 중창한 사찰이다. 이후 고려 충렬왕(忠烈王: 재위 1274~1309)의 비 정화궁주(貞和宮主)가 이 절에 옥등(玉燈)을 시주한 데서 비롯되어 전등사로 바뀌게 되었다. 전등사는 그래서 한국불교에 있어 매우 의미가 있는 절이다.

이곳에 있는 약사전은 조선시대 때 지어진 건물로서 건축술이 돋보이는 보물로 알려져 있다. 이곳에 보관된 현왕탱은 보물 제179호로 사람이 죽은 지 3일 만에 심판하는 현왕과 그 권속을 도상화한 것인데 조선 고종 21년(1894)에 제작된 그림으로 현왕도의 도상(圖上)적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는 점 등에서 19세기 불화연구에 귀중한 자료이다.

여기에 적혀 있는 주련은 한편의 선시(禪詩)처럼 매우 뛰어나고 아름답다. 그러나 힘 있고 단아한 주련의 글씨는 몇 번의 전장을 걸친 터라 누가

덕산 스님의 달마록 선해 달마혈맥론 35

견성한 후 법을 설하라

[원문]

但不見性人 讀經念佛 長學精進 六時行道 長學坐不臥 廣學多聞 以爲佛法. 此等衆生 盡是謗佛法人. 前佛後佛 只言見性. 諸行無常 若不見性 妄言我得阿耨提 此是大罪人. 十大弟子 阿難多聞中得第一 於佛無識 只學多聞.

'성품을 보지 못한 사람은 경을 읽고, 염불을 하며, 오래도록 배우고, 정진하며, 하루 여섯 차례 예불을 하고, 오랫동안 늙지 않으며, 두루 배우고, 널리 들으며, 많이 아는 것을 불법으로 아는데 이런 중생은 모두 불법을 비방하는 사람이다. 앞서 깨달은 부처님과 뒤에 깨달은 부처님이 오직 견성(見性)만을 말씀하셨는데, 성품을 보지 못하였으면 서로 망령되어 '나는 위없는 큰도를 얻었다'라고 말한다면 아주 큰 죄인이니라. 십대제자 가운데 아난이 가장 많이 알고 널리 배워서 식견이 제일이었으나 부처님께서 성문들로 하여금 도(道)에 벗어나게 하여 무식하게 만든다고 책망을 하셨느니라.'

[해설]

달마 스님은 우주의 근본 실상이 마음으로 된 도리를 모르고 불법을 행한다 함은 불법을 비방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처님께서 백천만겁난조우(百千萬劫難遭遇到)라고 말씀하신 것도 그만큼 참된 불법 만나기가 어렵단 말씀입니다. <천수경> <반야심경> 외운다고 불법 만난 게 아닙니다. 늙지 않고 수행하는 것을 장좌불와(長坐不臥)라고 하는데, 성품을 보지 못하면 장좌불와를 아무리 오래 한다고 해도 불교를 비방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라는 말을 쓰는 것도 불교를 비방하는 겁니다. 모든 존재가 부처이니 빌 대상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형상에 집착을 하니 '쇠로 된 불상은 용광로를 지나지 못하고, 흙으로 된 불상은 물을 지나지 못하고, 나무로 만든 불상은 불을 지나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절을 하더라도 우주의 근본, 모양이 없는 그 자리를 향해서 절을 하셔야 됩니다. 법당의 불상은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니, 우리를 마음의 세계에서는 이것을 초월해 나가야 됩니다. 이런 것을 보고 타종교에서 '우상 숭배', '미신이다', 어떤 분들은 '마귀의 소굴이다'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마귀를 믿는 분들은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를 만드는 것도 우리가 만들어 놓는 겁니다. '사람이 만든 불상에 왜 절을 하나?'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근본교리 가운데 삼법인(三法印)의 제행무상(諸行無常) 제법무아(諸法無我)의 가르침을 알면 어떤 것이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과학에서도 증명했듯이 모든 물질은 원자 차원에서 일초에 99억 번을 진동하고 있으니 시간성, 공간성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상을 향해 절을 하니까 다른 분들이 봤을 때 우상숭배요, 미신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불교는 대상이 없습니다. 불교를 조금 이해하시는 분들이 '불교는 무신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신(神)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완전히 무신론도 아닙니다. 신중(神衆)도 있지만 목숨을 걸고 그 분들에게 매달리는 것이 아니고 방편입니다. 달마 스님께서 말씀하신 우주를 그대로 하나로 볼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신행을 할 때正道(正道)로 가는 것입니다.

우주를 그대로 하나의 성품으로 보고 심분 정진한 것이, 성품을 보지 못하고 평생 장좌불와를 한 것보다 낫다는 얘깁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가르침과 달마 스님께서 말씀하신 가르침은 우주의 근본 실상, 하나의 마음으로 된 세계를 믿는 것입니다. 간화선 수행은 그 자리를 의심하는 겁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부처님으로부터 육조혜능 스님까지 가르침은 이해를 전제로 하고(理)서 뒤아가는 수행법입니다.

'앞서 깨달은 부처님과 뒤에 깨달은 부처님이 오직 견성(見性)만을 말씀하셨다.' 미륵부처님, 아미타부처님, 석가모니부처님께서 한결같이 중생들은 본래 성불할 수 있는 씨앗을 가지고 있으니 견성할 수 있는 길만 알려 주셨습니다. 어떤 부처님이 온다고 해서 우리를 부처로 만들어 주는 법은 없어요. 그런데 깨닫지 못하고 깨달았다고 간혹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것은 증상(增上)으로 큰 업이

됩니다. 십대제자 가운데 아난 존자는 부처님 말씀을 들으면 모두 기억을 했습니다. 아주 총명한 분이셨습니다. 법문을 듣고 성문 제자들에게 설명을 하면 부처님께서 "너는 도리어 성문들을 도에 벗어나게 만들고 무식하게 만드니 하지 말아라"하고 말씀하셨답니다. 아무나 법을 설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품을 보지 못하고 법을 설하는 것은 상대도 속이고, 나도 속이고, 부처님도 속이는 일입니다. ■ 정주 혜은사 주지



왕일정 그림, 오창석 제(題) '달마도'

중국 육조사(육조선원) 지구본원 선원장 모집

중국 광둥 육조사 한국 본찰 용화사(육조선원)에서는 중국선종의 초조 달마대사로부터 육조 혜능대사에 이르는 선불교 사상과 정통조계선종의 법맥을 함께 "21세기" 한국불교를 이끌어갈 불자님과 청정수행도량인 육조선원(본원, 명상센터)를 운영하실 스님 및 재가불자를 모집합니다.

◆ 자격 :

- ★선원장 : 학력 및 경력, 연령에 제한이 없으며 한국 비구, 비구니, 재가불자로 자비정신과 투철한 사명감을 지닌 분으로 수행도장 여건을 갖추신 분
★문화원장 : 현대인들의 정서에 맞는 정신수행에 관심있는 스님, 의사, 약사, 교사출신이나 일정한 수행 경력이 있는 분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1통 신분증 사본1통 이력서 (자기소개서) 1통

◆연락처 :

- 육조사 한국 본찰 용화사 (강원도 원주시 소재) TEL : 033)761-7008 033)761-2556 FAX : 033)761-3200 HP 011-285-6800
◆서울 문화원 : TEL : 02)766-6800 02)720-6363 FAX : 02)720-6340 HP 010-4176-5623
◆경기 문화원 : TEL : 031)574-1108
◆부산 육조선원 : TEL : 051)403-1375

※ 본 중국육조사 한국본찰 용화사 방장 석 연화 스님은 한국불교의 암담한 현실과 세계불교화에 뜻을 두고 중국 숭산 소림사 제자로 득도 수계 후 수행 중 지난 2008년10월11일 중국 광둥성 육조사 (대원 방장)와 한.중 불교 선 문화 교류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의발을 전수 받았으며, 양국 사찰에 기념비를 세우고 지난 2008년 12월28일 중국에서 천 년 만에 재현된 육조제를 한국에 유치 봉행위원장으로서, 2009년 5월21일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제2회 육조제를 봉행하였고 5월24일 불교 TV방송 "열린마당" 프юме 육조사 대원방장님과함께 특별출연 한 • 중선불교문화와 양국불교가 나아 갈 방향에 대해 토론하였으며 6월 5일에는 다시 육조사를 방문 육조사 한국 본찰용화사 방장으로 임명 받았고 한국 육조 법맥의 수법 및 전권대표로 중국 육조사 전법중심인 육조선학원원장에 추가 임명 되었으며 지난 9월14일에는 육조사 대원방장님의 초청으로 중국 호남성 흥강구 선 불교문화 축제에 참가 대홍사 육관을불점안 법회에 중명법사로동참하여 9월 17일에는 육조사 혜능대사 성상이 모셔진 육조선에서 거행된 전법 수계식에서 육조사 한국 제자로 수법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제 2기 불교 상례 전문지도사 과정 모집

불교 상례 전문지도사란

불교 상·제례 관련한 이론과 실기교육을 통해 사찰, 신행단체에서 상가봉사활동과 불교상례를 지도할 실무서비스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교육받아 상·제례 업종에 진출하게 되는 전문 직종입니다.

- 교육기간 : 2009. 10. 24 ~ 2010. 3. 27 (6개월 과정, 총 108시간)
● 모집 : 주간반 40명, 저녁반 40명
● 강의 : 주간반(토) 오전10~오후3시30분 저녁반(토) 오후3시30분~오후9시
● 장소 : 조계종 중앙신도회 교육관 -3호선 안국역 6번출구(조계사역) -1호선 종각역 2번출구(조계사역)
● 등록금 : 60만원(교재,실습비,현장학습 포함)
● 교육내용 - 불교 상·제례 이론과 실습 - 불교장제 관련시설 현장학습 - 봉안(납골)당, 자연장, 수목장 - 상조문화와 외국장제
● 수료후 진로 - 사찰·신행단체 상가봉사활동, 운영관리 - 봉안(납골)당, 자연장, 수목장 관리자 - 장례행사, 회원관리, 홍보활동 등 - 장례관련업체 진출

◆ 수료 후 불교 상례 전문지도사 자격증 발급 ◆

- 교수진 : 동국대 불교대학원 생사리례학과 출강 교수 - 불교 상제례 실습 : 유재철 - 크스님들 (법장, 승산, 석주 외) 장례와 최규하, 노무현, 김대중 전 대통령 장례진행함
- 불교 상제례 이론 : 손남숙 박사 - (사)한국생활문화연구원 원장, 노무현 전 대통령 국민장 참여
- 불교의례, 천도제 : 구미래 박사 - (사)성보문화재단연구원 기획실장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신도회 부설 불교생활의례문화원 02) 739-4444